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 순 희

2015년 6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민 호

김 순 희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김순희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5년 6월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Causal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aising Attitude and Children's Friendships

Kim, Sun 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15

국 문 초 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김 순 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아동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을 통해 아동의 친구관계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및 아동의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아동의 친구 및 성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구관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격특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을 위해 최인재(2006)가 제작한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김나연(2010)이 질문지로 구성한 것을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성격특성 측정은 McCrae와 Costa(1992)가 개발한 NEO-PI-R을 안창규·이경임(1996)이 간편 NEO 인성검사로 번안하였으며 이수진(2006)이 질문지로 재구성한 것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친구관계 측정은 김형태(1984)가 제작한 것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46명(남학생 185명, 여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동의 성격특성도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격특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의 올바른 성격적 특성이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올바른 정서적 성장을 위한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친구와 부모를 함께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주요어 :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 아동의 성격특성, 매개효과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부모의 양육태도	6
2. 아동의 성격특성	8
3. 친구관계	12
4.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의 관계	15
III.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21
1. 연구모형	21
2. 연구가설	22
IV. 연구 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측정 도구	24
3. 자료처리	29
V. 연구결과	30
1.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의 관계	30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구관계에 있어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 34

VI. 논의 및 제언 ----- 41

1. 논의 ----- 41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45

참고문헌 ----- 46

ABSTRACT ----- 55

부 록 ----- 57

표 목 차

<표 IV-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	24
<표 IV-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5
<표 IV-3>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내용 -----	26
<표 IV-4> 아동의 성격특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7
<표 IV-5> NEO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	27
<표 IV-6> 친구관계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8
<표 IV-7> 친구관계의 하위요인과 내용 -----	29
<표 V-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의 기술통계 -----	30
<표 V-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의 매개효과 ----	36
<표 V-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방성의 매개효과 ----	36
<표 V-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실성의 매개효과 ----	38
<표 V-5>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신경증의 매개효과 ----	40

그 립 목 차

[그림Ⅲ-1] 연구 모형 -----	22
[그림 V-1]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의 매개효과 ---	35
[그림 V-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방성의 매개효과 ---	37
[그림 V-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실성의 매개효과 ---	39
[그림 V-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신경증의 매개효과 ---	4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아동이 접하게 되는 최초의 환경으로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아동의 전 발달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훈육자이자 모델로서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Freud는 아동이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대상관계이론가들 또한, 아이의 성격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외부 대상으로 부모를 꼽으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가 이후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나연, 2010).

Sears(1965)는 아동이 개개인의 성격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 졌느냐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존재이며 교육자이자, 아동이 행동과 정서표현 방법을 배우는 모델링으로 성격과 인간관계의 기본유형을 습득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린 시절 가정의 제반 환경은 아동의 성장과 성격발달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성격이 협동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강승혜, 1985).

부모 다음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친구 및 또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친구나 또래관계는 부모관계와는 다른 수평적 구조로 평등성을 갖으며 또한 친구관계는 가족관계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친구관계는 친구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하고 애정, 협동, 결속력, 도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측면을 경험하기도 하는 반면, 대립, 갈등,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교환도 나타내어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제공한다(최지은, 2001).

학령기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친구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아동의 친구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정서, 행동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학교는 제일 처음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친구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곳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이 시기에 아동의 친구관계가 어떠한지는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의 되며 이는 아동의 인생 전체의 삶과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학교생활, 특히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고 이것은 점차 학교 부적응양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충래 · 이신옥(2003)는 아동의 성장기에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형성 및 교우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태도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친구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나타낸다고 했다.

성격발달 과정에서 친구관계는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은 물론 독립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Bandura(1977)가 밝힌 바와 같이 아동들은 또래들에게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대대는 행동과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으며, 자신의 능력과 측정을 평가 할 수 있는 표준으

로서의 모델 역할을 제공받게 된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이영민, 2006). 또한, 이운영 · 장휘숙(2011)은 여학생이며 높은 호감성 및 외향성을 지닐 경우 친구와 온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전성과 호감성을 지닐 때 친구관계가 더 갈등적 관계를 경험한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아동의 성격특성이나 친구관계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아동의 지각한 양육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아동의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이는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주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정의적 특성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나영, 2007).

정동숙(2014)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자녀에게 있어 인성적, 행동적, 실제적인 영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고 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아동의 그렇게 지각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문제가 된다.

또한 아동 후기는 청소년기와 다른 특징을 갖게 되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박희정, 2009)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6학년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이 성격과 인지, 정서, 신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문미영, 2001; 최지은, 2001; 한경택, 2002; 이나영, 2007; 홍현숙, 2008; 이양숙, 2008; 손유진, 2011 등)는 많이 이루어져 왔고 아동의 성격특성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영민, 2006; 전혜리, 2007; 이영화, 2008; 김인순, 2009; 윤미선, 2010; 배지형, 2012; 김승희, 2013 등)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 따른 연구(김민정,

2004; 송영희, 2006; 김나연, 2010; 노윤란, 2013; 신지영, 2013 등)도 간간이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친구관계가 매개변인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로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적 특성 및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이 연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구관계 변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조사하여 아동의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이룰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시기의 올바른 부모의 자녀 양육방법을 위한 기초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초등학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구관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

- 2) 초등학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격특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방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친화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실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5)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신경증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 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양육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모가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 및 정서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양육태도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해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아동의 성격특성

성격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하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하며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된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 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Costa & McCrae(1987) 가 제시한 5가지 성격특성요인을 바탕으로 안창규, 이경임에 의해 번역된 척도 NEO-PI-R를 이수진(2006)이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성격특성의 하위 변인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으로 구성하였다.

3) 친구관계

친구란 비슷한 연령이나 비슷한 성숙 수준에 있는 아동으로 친구관계란 두 사람이 애착과 호감 및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이다. 또한 애정, 관심, 흥미 및 정보를 공유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친밀관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하위요인을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친구간의 공동생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의 정의 및 유형

1) 양육태도의 정의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경험을 습득하고 학습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그 가정에서도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동의 성격발달과 사회성 및 정서, 행동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의 전반적인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진화, 1999)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 한 다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서도 잘 지내며 독립성과 자발성을 가지는데 도움을 준다(정동숙, 2014).

여기서 양육태도라 함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지속적인 태도로서, 의사소통을 포함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는 모든 행동양식으로 자녀의 모든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오창순·송미숙, 2004).

부모는 자녀를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대하며 애정으로 감싸 줄 때 자녀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이고 사회적 적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익애하거나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 할 때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자녀의 감정이나 분노의 통제 능력에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화, 1988).

부모로부터 거부, 무관심, 과보호 등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경험하며 성장한 자녀

는 비현실적인 개념이 형성되어 자신의 욕구를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엄격한 양육태도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적대적이고 비협동적이며 사회성에 결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문, 1985).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너무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행동하며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기 쉽고 자발성이 부족하여 성장하면서 반항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반면 방임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침착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무기력하고 비사교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으며(유효순 · 지성애, 2004) 부모로부터 과잉보호와 과잉통제를 당한 자녀는 사회 공포증을 보이며, 반대로 거부적이고 돌봄이 적고 방임에 노출된 자녀는 반응성 애착장애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애착이 형성되면 장애정도가 없어진다고 보았다(정동숙, 2014).

2)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먼저 국내의 양육태도 유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기선(1965)은 거부형, 지배형, 보호형, 복종형으로 분류하였고, 정원식은(1979)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오성심 · 이종승(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박성연(1989)은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박영애(1995)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분류하였고 허묘연(2000)은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안정만(2001)은 온정-애정, 공격-적대, 무시-무관심, 거부로 구분하였고 김영숙은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모순 불일치 태도 순으로 분류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양육태도들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은 부모 또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훨씬 관련이 깊다. 즉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자녀에게 있어 인성적, 행동적, 실제적인 영향이 더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 하는가?에 대해 최인재(2006)가 제작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질문지로 친밀, 헌신, 존경, 엄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정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헌신의 정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정도, 부모의 엄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4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성격특성 및 친구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의 성격특성

1) 성격의 개념

성격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에게서 정의되어 왔으며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Eysenck(1947)는 Personality를 유전과 환경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행동형태의 전체라고 보고 성격은 ‘인지적인 것, 능동적인 것, 정의적인 것, 신체적인 것 등 네 가지 요소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 발전 한다’고 했으며, Allport(1961)는 성격을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내의 역동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Hilgard(1962)는 성격이란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 특유의 개인적 특성이나 행동양식의 전체적인 통합체를 뜻 한다’고 하였으며 Mischel(1976)은 ‘개인의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패턴’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addi(1996)는 ‘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 공통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성과 특성이

다. 이러한 심리적 행동은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가지며 어떤 순간의 사회적 및 생물학적 압력의 단일한 결과로서 쉽게 이해 될 수 없다' 고 했다. 이 외에도 Ryckman(2000)은 '성격은 개인의 소유한 일련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 고 했고 Burger(2000)는 '성격은 일관된 행동패턴 및 개인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 내적 과정이다' 고 했다. 박수만(2009)은 '성격이란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각 개인의 적응을 특정 짓는 사고와 정서를 포함한 독특한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고 했다. 이렇듯 성격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들 속에 포함된 공통된 개념을 살펴보면 지속성, 항상성, 독자성, 특질적, 개성적, 조직적, 이라는 특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종합해 보면 '성격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과 관련하여 이해 될 수 있고 성격은 관찰 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격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하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독특 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하며,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된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 한다' 고 할 수 있다(노안영· 강영신, 2003).

2) 성격특성 요인

성격의 개념과 측정은 어떤 심리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성격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은 정신 역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사회·인지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등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심리학에서 인간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영역의 기반이 되는 모형은 5요인 모델(five-factor model:FFM)이다. Christal과 Tupes(1961)는 성격의 30개 척도를 분석한 결과 성격의 5요인을 추출 하였으며 Goldberg가 1981년에 이 다섯 가지를 'Big Five'로 부르기 시작했고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5요인은 신경증(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되며 1980년대 이후로 5요인 이론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고 지금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후 개인의 성격특성을 5요인을 기반으로 McCrae와 Costa(1992)가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정서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이 요인에 대한 해석이 점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안창규·이경임(1995)의 번역하였으며, 안창규·채준호(1997)가 문항수정작업을 거쳐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고, 안현의·김동일·안창규(2005)가 NEO 성격검사를 만들었다. 이는 임상적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도 학교상담 및 학교심리의 적극적인 조력과정에서 증상적 진단을 함과 동시에 건강한 성격의 지표 및 기질적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여 생활지도, 성격지도,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성격특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Extraversion)이다. 이 외향성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성향이며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추구하는 환경의 자극강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의 되며,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적성과 관련이 높은 특성이 있다. 외향성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며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을 잘 하며,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열성적이며 낙천적이다. 반면 외향성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장소를 싫어하고,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둘째,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다. 이 개방성은 지적자극,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지능이나 창의성과도 관련되지만 지능과 동일하지는 않다. 이 특성은 유전적이기 보다는 가정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성취지향과도 관련이 있는 특성이다. 개방성의 높은 사람은 내, 외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독창적이고 독립적이며 지적인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반면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에 예민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경

험 세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McCrae와 Costa(1985)는 이 구성 개념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구성개념을 상상력, 호기심, 그리고 창의성을 들고 있다.

셋째, 친화성(Agreeableness)이다. 이 친화성 요인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타인에게 따스한 감정을 가지며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는 타인 지향성의 양상으로 외향성과 함께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 특성은 주로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양쪽극단은 어느 쪽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순응적이고 남을 돕고자하며 이타성을 지니며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잘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신경하고 잘 배려하지 못하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넷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다. 이 성실성 요인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잘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믿음직스러운 특징과 미래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성취욕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람보다는 주로 일이나 공부와 관련된 행동특성으로 나타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유능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이 있다. 과제에 대한 조직력이 뛰어나고 성취욕구가 강하여 목적 지향적이며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여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못한다. 반면 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스스로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사려 깊지 못하고 과제나 일에 대한 조직력이 부족하다. 성취의욕이 없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룰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신경증(Neuroticism)이다. 이는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정도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또한 강한 정신적 반응을 보이는가를 의미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며 불안, 두려움, 우울,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빈번히 경험하며 자신의 충동성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보통사람에 비해 예민하고

일상생활에서 욕구불만이 많다. 반면 신경증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억압하고 문제에 둔감하고 무신경하다. 신경증 점수가 낮은 사람이 반듯이 긍정적인 정신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며 그들은 단순히 평온하고 이완되었고 침착하고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정의 할 수 있다(조재정,2012).

3. 친구관계

1) 친구관계의 정의

친구관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친구관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관계는 둘이상의 아동이 서로 우정을 느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뜻하며 학교에서 원만한 친구관계가 형성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되고 매년 반복 될 수 있는 학급적응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될 것이다. 또한 같은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또래들과의 응집력도 커질 것이며 나아가 아동의 성격, 정서 및 친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형성, 사회적응도에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향상 될 수 있다(신지영;2013).

또한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가 감소하며 자아개념의 변화를 경험하고, 친구는 서로에게 사회화를 위한 적절한 모델로 작용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 받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Hartup(1983)은 친구관계를 동등한 위치에서 애정, 관심, 흥미,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독특한 이원관계이며 애착,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정의하면서 친구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적 자원을 제공하며 자기인식과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의 된다고 언급하였다. Damon(1977)은 친구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며 사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감정, 비밀을 이

야기 하는 등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이며 양방적인 인간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Howes(1983)는 친구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거움을 느끼며 능란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정의적 결합이라고 하였고 Hartup과 Steven(1997)는 친구관계는 일생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Epstein(1984)에 의하면 또래관계의 경우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집단 내 관계로 구성된 구성원이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 관계로 정의되는 반면, 친구관계는 상호선택에 의한 친밀한 양자관계로서 또래관계와 비교해 상호작용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ukowski & Hoza,1989, Parker & Asher,1993; 배지형, 2012;재인용).

Sharabany(1982)는 친밀한 친구관계를 친한 또래와의 관계로 정의 내리면서 “친밀한 교우는 서로를 친구로서 상호지명하고 관계는 상호적 신뢰와 충성으로 특징 지워지며 그들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자발적이며 개방적이다. 그들은 서로의 느낌, 선호에 대해 알고자 하며 함께하는 것을 즐길 뿐 아니라 그 관계가 배타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또 그들은 물질적, 감정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를 돕고 지지한다” 라고 설명했다.(김민정, 2004;재인용)

우리나라의 최근 연구에서는 윤진(1984)은 누구의 요청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관계이며,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고 물질적 혹은 감정적 교환을 맺는 관계라고 하였고 정미(2003)가 친구관계를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관계로 정의하고 추가로 친구관계를 상호 의존성, 자발성, 친밀감으로 대표되는 강한 상호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 둘 이상의 교우가 친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영진(2005)은 친구관계를 학급 내에서 둘 이상의 아동이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우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고소미(2007)는 신뢰감에 바탕을 두고 개방적으로 서로에 대해 나누는 관계를 친구관계로 정의하였다(신지영, 2013).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친구관계는 기본적으로 애정, 친밀감,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를 이해하며, 호의를 베푸는 양방적이고 수평적인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친구관계의 중요성

친구관계는 동년배, 동등한 입장, 동학년 등의 요인에 의하여 성립되며 이 관계를 통해 태도, 가치, 도덕적 기준 등을 학습하여 동료의식, 연대감, 우월감, 열등의식이 싹트고 발달하게 된다(이은숙, 1999).

이영환(1991)은 아동에게 있어서 친구는 부모가 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체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으며 최보가(1993)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기술부족 때문에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들로부터 고립되고 배척되는 어려움을 겪는데, 또래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들은 후에 학교를 그만 두거나 범죄 행동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구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몇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첫째는 대등한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나이, 신분, 학년이 비슷한 사람끼리 맺는 수평적인 친밀관계이다. 둘째, 친구관계는 가장 순수한 인간지향적인 대인관계로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나 과업을 지니고 있는 업무 지향적 관계와는 구분되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우정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의 되므로 인간중심적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셋째, 친구관계는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로 심리적 부담과 제약이 적고 책임감을 덜 느끼는 자유스러운 관계이다. 넷째, 친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삶의 영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는 구속력이 적어 해체하기 쉬운 특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친구관계는 초등학생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 청소년 전기 발달과업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일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친구관계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복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아동의 일생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기초가 된다(김미란, 2002)

친구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친구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공헌한다. 아동은 상호놀이를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력과 인지적 발달을 이루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대인관계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정체

감, 가치, 신념 등을 형성하게 된다(한진리, 2002).

둘째, 친구관계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지지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아동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있어 주거나 경험을 공유해 주는 동반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 친밀한 친구관계의 결핍은 지원과 사회적 지지라는 중요한 자원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친밀한 친구관계의 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에 특히 중요하다(배지형, 2012).

셋째, 친구관계는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기도 한다. Howes(1988)와 McGuire & Weize(1982)에서 상호적 친구가 있는 아동과 상호적 친구가 없는 아동이 사회, 인지적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상호적 친구를 가질 경우 정서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상호작용의 부족은 낮은 지각수준과 관련이 있고 억압된 아동의 동료는 억압되지 않은 아동의 동료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Rockhill, 2000). 이처럼 친구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학교생활 및 성격적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의 관계

1) 양육태도와 성격특성

1910년대 Freud가 “영·유아기에 있어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며 시작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Freud는 인간의 발달에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성격은 다섯 살까지 거의 형성된다고 하고 그 후의 성장은 기본적 구조가 마무리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만큼 어린 시절 대부분의 주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그 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사실로 보고되고 있다.

Hurlock(1950)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통제형 양육태도 하에서의 자녀는 대체로 순종적, 수동적, 의존

적이며 예의가 바르나 대신 반항적, 투쟁적, 자학적이고 불안하며 자립성과 창조성이 결여된다고 하며, 과보호형의 부모는 필요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하므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고 의존심이 강해 활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때로는 분열적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했다(김인순, 2009).

진용일은(1970)은 자녀의 원만한 성격형성의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건전한 인간관계이며 부모의 태도는 곧 자녀에게 반영되어 자녀의 인성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며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 졌던 애정의 격려가 중요하다고 했다. Buss와 Plomin (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결정요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질과 관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태연, 2001,재인용). 즉, 자녀들은 부모가 지니는 분노의 정도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박은미는(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에서 익애형 어머니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사려성과 안전성은 높아지고 적극적 거부형으로 지각한 자녀인 경우 안정성이 낮아지며, 엄격한 어머니로 지각한 자녀의 경우는 사회성이 낮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를 적극적 거부형, 모순형, 불일치형으로 지각 할수록 아동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전아영(2005)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비합리적으로 느낄수록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특성인 웅대성, 과장된 자기지각, 자기중심성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배성희(1995)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애착체계를 발달시켜 청소년기 성격을 결정짓게 되며 부모가 유아기때 습득한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 양육 시 양육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첫째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 하에서 자란 아동들은 사고유형이 긍정적인 반면, 익애나 과보호 하에서 자란 아동은 자기중심적이고 비사회성 및 성격이 양극성이 나타나며,

둘째, 적대적이거나 방임형의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아동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며 불안한 성격이 나타나고,

셋째, 통제적 양육 태도 하에서 자란 아동은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성격과 불안, 내성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즉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순종하는 성격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원식, 1985).

2)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의 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Rubin과 LeMare 와 Lollis(1990)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안정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하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또래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또래집단에서 배척받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Cohn(1990)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그 자녀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또래수용도가 낮다고 했으며 Dekovic과 Janssens(1992)은 부모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aruch와 Barnett(1981)은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적절한 제한을 할수록 자녀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했으며 Conger와 Bryant 그리고 Elder(2002)는 부모의 지지적 혹은 적대적 양육태도는 자녀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도 지지적, 적대적 태도를 갖게 하여 이것이 친구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친구관계에 대해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민영(2009)은 수용적인 양육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들은 친구 간에도 친절해 질 수 있고 독립적이며 자발성을 갖도록 하는데 반해 부모의 엄격한 태도 하에서 자란 자녀들은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고 비협동적이며 사회성에 결함을 초래한다고 했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자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좀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 정서적 안정성, 높은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귀성(1999)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특성 간에는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 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류동훈(2000)은 어머니에게 수용된 아동들은 사교적 협동적, 우호적이며 정서적으로 쾌활하지만 어머니에게 거부된 아동들은 낮은 자존감, 공격성, 신경성 질환, 대인관계의 부적응을 초래하며 자기표현의 서투르고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강문희· 강석영, 2006). 정미경(2002)은 아동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정적 또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은주(1999) 역시 부모가 수용적일수록 또래 수용도가 높고 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이 낮으며 통제적일수록 또래 수용도가 낮고 자녀의 공격성과 우울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송영희(2006)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이는 아동의 부모의 과잉간섭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문경주, 오경자(2002)가 지적했던 것처럼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서구 사회에서와 달리 자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모의 과잉개입이 전혀 다른 의미로 지각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 보다 친구관계와 정적 상관을 이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친구관계가 원만해 진다고 하고 있다(김희수, 2004).

또한 개방적인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일수록 친구와의 의사소통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이양숙, 2008; 이은자, 2005)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친구관계에 있어 효과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방식이 수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고, 심원희(2003)는 부모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위축이나 비행 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인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의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반면 엄격요인은 거부적이고 통제적 요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다양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 따라 아동의 성격 및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5요인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 본 조영란(2005)에 의하면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독립적이고 동정적이며 사교적인 성향과 같은 비교적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경증이 높을수록 지배적이고 경쟁적이며 반항적인 성향과 같은 부정적 대인관계 성향이 높았으며 외향성, 친화성이 대인관계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은(2006)은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유머감각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성격특성은 학교생활 적응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성격특성 유형중 외향성을 갖는 아동이 친구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 했으며, 이운영과 장휘숙(2011)은 초등학생의 친구관계가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호감성에 대해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경증(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갈등적 친구관계를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외향성과 친화성은 친구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신경증은 부적인 상관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여대생이 경우 개방성과 성실성은 친구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이라고 했다 (조영란, 2005). 또한 성격특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최영임과 장휘숙(2007) 연구에서 보면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두 변인 서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성격과 일반적인 대인관계, 성격과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와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보거나 성격특성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하는 연구는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는 5요인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유의미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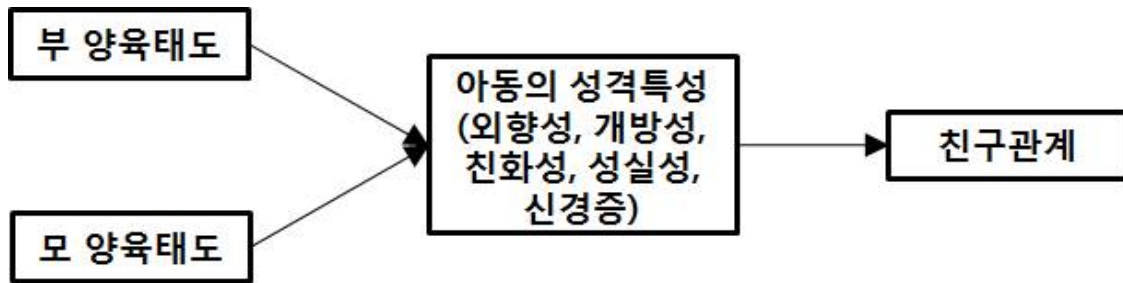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에서 각 변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나 아동의 성격특성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성격특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배지형(2012)의 연구에서 보면 부모와의 애착과 친구 관계 간에 성격특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특성이 하위요인중 개방성과 성실성이 긍정적 친구관계를, 신경증이 부적 상관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윤미선(2012)은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에서 성격특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과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에 성격특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또는 중재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드물게 볼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격특성이 직접적 영향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이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1-1. 초등학생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2. 초등학생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3. 아동의 성격특성과 아동의 친구관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격특성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방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친화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실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5.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신경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V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적 특성 및 친구관계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은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총 390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그중 불성실한 설문지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설문지 등 44부를 제외한 34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아동을 살펴보면 5학년 181명(52.3%)과 6학년 165명(47.7%)이었고,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185명으로 53.5% 이고 여학생이 161명으로 46.5%로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1> 연구대상

학년 \ 성별	남학생	여학생	합계
5학년	93(26.9%)	88(25.4%)	181(52.3%)
6학년	92(26.6%)	73(21.1%)	165(47.7%)
합계	185(53.5%)	161(46.5%)	346(100.0%)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으로 아동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아동의 성격특성 척도, 친구관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척도에 대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검사하기 위해 최인재(2006)가 제작한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김나연(2010)이 질문지로 재구성한 것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아동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부, 모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김나연(2010)이 4단계 평정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하여 사용한 것을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긍정적인 문항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친밀, 헌신, 존경, 엄격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별 해당 문항구성과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표 IV-2> 와 같고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변인별 내용은 <표 IV-3>와 같다.

<표 IV-2> 부모의 양육태도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친밀	1,2,6,9,11,15,19	7	.923
헌신	3,7,10,12,16,20	6	.902
존경	4,8,13,17	4	.839
엄격	5*,14*,18*	3	.725

주1) *는 역채점 문항임

< 표 IV-3 >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변인별 내용

하위 변인	내 용
친 밀	. 친근함과 편안함 . 부모와 비밀과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친구같이 편안하게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헌 신	. 희생, 안쓰러움, 측은함 . 부모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고 지각하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측정한다.
존 경	. 존경(신뢰), 책임감(성실), 능력 . 부모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받고 싶은 마음과 부모가 자녀의 인생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엄 격	. 엄함(권위적), 과묵(무뚝뚝), 보수(융통성 없음) . 부모를 무섭고 권위적으로 인식하여 부모에 의해 자신의 의사가 무시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2) 아동의 성격 특성

아동의 성격특성은 최근 심리학자들 간의 중요 관심사인 5요인 성격특성으로 McCrae와 Costa(1992)가 개발한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를 안창규·이경임(1996)이 간편 NEO 인성검사로 변안한 검사방법을 사용한 척도를 이수진(2006)이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재사용하였다. 이 검사 문항은 모두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개인의 응답을 5점 척도 평정으로 하는 자기 보고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피검사자들의 문항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검증한 신뢰도는 <표 IV-4> 과 같고 성격특성 5요인의 하위요인 내용은 <표 IV-5>와 같다.

<표 IV-4> 아동의 성격특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외향성	1, 5, 10, 12, 19, 23, 26, 33	8	.894
개방성	6, 16, 20, 24, 27, 34, 38	7	.737
친화성	3*, 7*, 13*, 17*, 25*, 35*, 39*	7	.730
성실성	8, 14, 18*, 21, 30, 31, 36, 40	8	.805
신경증	4, 9*, 11, 15, 22, 29*, 32, 37	8	.764

주1) *는 역채점 문항임

주2) 개방성의 2번 문항과 친화성의 28번 문항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함

<표 IV-5> NEO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5요인 구조	하위요인
외향성(Extraversion)	사교성(E1), 주장(E2), 활동성(E3), 자극추구(E4)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창의성(O1), 정서성(O2), 합리성(O3), 진취성(O4)
친화성(Agreeableness)	온정(A1), 신뢰(A2), 이타성(A3), 관용성(A4)
성실성(Conscientiousness)	유능감(C1), 조직성(C2), 책임감(C3), 동조성(C4)
신경증(Neurotism)	불안(N1), 적대감(N2), 우울(N3), 충동성(N4), 소심증(N5)
	심약성(N6), 정서적 충격(N7), 특이성(N8), 신체적 자아(N9), 부정적 자존감(N10)

출처: 김동일·안현의(2006), NEO 청소년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서울 청소년 상담 연구. 14(1), 77- 91.

3) 아동의 친구관계

친구관계 측정을 위해 김형태(1989)가 제작한 것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에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하위영역은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친구간의 공동생활로 구성되었으며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6문항, 교제의 지속성 6문항, 친구간의 적응 5문항, 친구간의 공동생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였다. 친구관계 점수는 각 하위요인별로 최저 3점에서 최고 24점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IV-6>과 같고 하위 요인과 내용은 <표 IV-7>과 같다.

<표 IV-6> 친구관계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1*, 2*, 3*, 4*, 5*, 6*	6	.862
교제의 지속성	7*, 8*, 9*, 10*, 11*, 12*	6	.840
친구간의 적응	13*, 14*, 15* 16, 17*	5	.765
친구와의 공동생활	19, 20	2	.597

주1) *는 역채점 문항임

주2) 친구와의 공동생활의 18번 문항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함

<표 IV-7 > 친구관계의 하위요인과 내용

하위 요인	내 용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신뢰를 가지고 사귄 수 있는 친구 관계 . 친구와 어울릴 수 있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와의 사귄정도 . 친구와의 사귄 정도
교제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와 성실로 친구와의 교제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는가?
친구간의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의 사귄에 인기가 있는가? . 친구들과의 상호관계와 적응
친구간의 공동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가? . 친구들과의 사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반응

3. 자료처리

연구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구관계 사이에 성격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종속변인은 아동의 친구관계, 매개변인은 성격특성(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V. 연구 결과

1.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 특성, 친구관계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 수행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는 <표 V-1>과 같다.

<표 V-1>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 특성, 친구관계의 기술통계(n=346)

	부모 양육태도								성격특성					친구관계			
	부친밀	부헌신	부존경	부엄격	모친밀	모헌신	모존경	모엄격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친구 신뢰	교제 지속	친구 적응	공동생활
부친밀	1																
부헌신	.66***	1															
부존경	.74***	.70***	1														
부엄격	-.47***	-.29***	-.26***	1													
모친밀	.58***	.56***	.56***	-.29***	1												
모헌신	.43***	.76***	.51***	-.21***	.71***	1											
모존경	.52***	.58***	.66***	-.20***	.77***	.71***	1										
모엄격	-.23***	-.27***	-.27***	.45***	-.48***	-.31***	-.30***	1									
외향성	.45***	.37***	.37***	-.27***	.51***	.44***	.49***	-.27***	1								
개방성	.39***	.37***	.35***	-.12*	.46***	.41***	.43***	-.17**	.50***	1							
친화성	.25***	.17**	.18**	-.41***	.30***	.15**	.18**	-.43***	.26***	.12*	1						
성실성	.38***	.39***	.34***	-.17**	.49***	.44***	.43***	-.28***	.45***	.56***	.14**	1					
신경증	-.30***	-.17**	-.21***	.31***	-.32***	-.17**	-.22***	.40***	-.39***	-.19**	-.52***	-.36***	1				
친구신뢰	.28***	.17**	.18**	-.29***	.30***	.22***	.24***	-.29***	.55***	.22***	.43***	.26***	-.56***	1			
교제지속	.23***	.15**	.13*	-.21***	.32***	.23***	.24***	-.29***	.48***	.20***	.36***	.30***	-.53***	.77***	1		
친구적응	.23***	.19***	.13*	-.26***	.27***	.22***	.22***	-.23***	.48***	.19***	.41***	.28***	-.58***	.81***	.81***	1	
공동생활	.25***	.22***	.18**	-.13*	.35***	.27***	.25***	-.22***	.34***	.40***	.23***	.41***	-.32***	.29***	.30***	.33***	1

* p < .05 ** p < .01 *** p < .001

1)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간 상관관계

먼저 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보면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친밀, 헌신, 존경은 아동의 성격특성의 하위변인 중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부친밀과 외향성($r=.449, p<.001$), 부친밀과 개방성($r=.389, p<.001$), 부친밀과 친화성($r=.252, p<.001$), 부친밀과 성실성($r=.376, p<.001$), 부헌신과 외향성($r=.368, p<.001$), 부헌신과 개방성($r=.368, p<.001$), 부헌신과 친화성($r=.170, p<.01$), 부헌신과 성실성($r=.385, p<.001$), 부존경과 외향성($r=.373, p<.001$), 부존경과 개방성($r=.346, p<.001$), 부존경과 친화성($r=.182, p<.01$), 부존경과 성실성($r=.337, p<.001$), 부친밀과 신경증($r=-.298, p<.001$), 부헌신과 신경증($r=-.172, p<.01$), 부존경과 신경증($r=-.206, p<.0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엄격과 외향성($r=-.269, p<.001$), 부엄격과 개방성($r=-.120, p<.05$), 부엄격과 친화성($r=-.414, p<.001$), 부엄격과 성실성($r=-.173, p<.01$), 부엄격과 신경증($r=.307, 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양육태도 중 친밀, 헌신, 존경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높아지고 신경증은 낮아지며, 부의 양육태도가 엄격할수록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아지고, 아동의 신경증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간의 관계도 부와 마찬가지로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친밀, 헌신, 존경은 아동의 성격특성의 하위변인 중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모친밀과 외향성($r=.509, p<.001$), 모친밀과 개방성($r=.4579, p<.001$), 모친밀과 친화성($r=.295, p<.001$), 모친밀과 성실성($r=.490, p<.001$), 모헌신과 외향성($r=.436, p<.001$), 모헌신과 개방성($r=.411, p<.001$), 모헌신과 친화성($r=.152, p<.01$), 모헌신과 성실성($r=.440, p<.001$), 모존경과 외향성($r=.491, p<.001$), 모존경과 개방성($r=.427, p<.001$), 모존경과 친화성($r=.182, p<.01$), 모존경과 성실성($r=.427, p<.001$), 모친밀과 신경증($r=-.318, p<.001$), 모헌신과 신경증($r=-.173, p<.01$), 모존경과 신경증($r=-.215, p<.0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다. 즉, 모엄격과 외향성($r=-.265, p<.001$),

모엄격과 개방성($r=-.165, p<.01$), 모엄격과 친화성($r=-.431, p<.001$), 모엄격과 성실성($r=-.275, p<.001$), 모엄격과 신경증($r=.403, 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양육태도 중 친밀, 헌신, 존경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높아지고 신경증은 낮아지고, 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할수록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아지고, 아동의 신경증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과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다른 변인들과 긍정·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성격특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엄격한 요인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간 상관관계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친밀, 헌신, 존경은 친구관계의 하위변인 친구신뢰, 교체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부친밀과 친구신뢰($r=.278, p<.001$), 부친밀과 교체지속($r=.233, p<.001$), 부친밀과 친구적응($r=.226, p<.001$), 부친밀과 공동생활($r=.246, p<.001$), 부헌신과 친구신뢰($r=.431, p<.01$), 부헌신과 교체지속($r=.151, p<.01$), 부헌신과 친구적응($r=.192, p<.001$), 부헌신과 공동생활($r=.246, p<.001$), 부존경과 친구신뢰($r=.173, p<.01$), 부존경과 교체지속($r=.132, p<.05$), 부존경과 친구적응($r=.128, p<.05$), 부존경과 공동생활($r=.179, p<.01$)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친구관계의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부엄격과 친구신뢰($r=-.285, p<.001$), 부엄격과 교체지속($r=-.208, p<.001$), 부엄격과 친구적응($r=-.255, p<.001$), 부엄격과 공동생활($r=-.127, p<.05$)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와 마찬가지로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 친밀, 헌신, 존경은 친구관계의 하위변인 친구신뢰, 교체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모친밀과 친구신뢰($r=.297, p<.001$), 모친밀과 교체

지속($r=.318, p<.001$), 모친밀과 친구적응($r=.267, p<.001$), 모친밀과 공동생활($r=.345, p<.001$), 모헌신과 친구신뢰($r=.216, p<.001$), 모헌신과 교제지속($r=.230, p<.001$), 모헌신과 친구적응($r=.215, p<.001$), 모헌신과 공동생활($r=.267, p<.001$), 모존경과 친구신뢰($r=.240, p<.001$), 모존경과 교제지속($r=.244, p<.001$), 모존경과 친구적응($r=.221, p<.001$), 모존경과 공동생활($r=.254, p<.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친구관계의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모엄격과 친구신뢰($r=-.288, p<.001$), 모엄격과 교제지속($r=-.287, p<.001$), 모엄격과 친구적응($r=-.233, p<.001$), 모엄격과 공동생활($r=-.219, p<.001$)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중 친밀, 헌신, 존경이 높을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이 높아지지만 엄격할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성격특성과 친구관계 간 상관관계

아동의 성격특성의 하위변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친구관계의 하위 변인인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정적상관이 있었고,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은 친구관계의 모든 변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외향성과 친구신뢰($r=.553, p<.001$), 외향성과 교제지속($r=.484, p<.001$), 외향성과 친구적응($r=.478, p<.001$), 외향성과 공동생활($r=.338, p<.001$), 개방성과 친구신뢰($r=.216, p<.001$), 개방성과 교제지속($r=.204, p<.001$), 개방성과 친구적응($r=.188, p<.001$), 개방성과 공동생활($r=.403, p<.001$), 친화성과 친구신뢰($r=.429, p<.001$), 친화성과 교제지속($r=.361, p<.001$), 친화성과 친구적응($r=.411, p<.001$), 친화성과 공동생활($r=.228, p<.001$), 성실성과 친구신뢰($r=.258, p<.001$), 성실성과 교제지속($r=.298, p<.001$), 성실성과 친구적응($r=.279, p<.001$), 성실성과 공동생활($r=.413, p<.001$), 신경증과 친구신뢰($r=-.559, p<.001$), 신경증과 교제지속($r=-.528, p<.001$), 신경증과 친구적응($r=-.575, p<.001$), 신경증과 공동생활($r=-.318, p<.001$)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높아지는 반면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을

수록 친구관계의 모든 변인들과의 관계는 낮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부모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 있어 아동의 성격특성이 매개효과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V-2>와 같다.

<표 V-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의 매개효과

구분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²	F
			B	SE	β			
부	독립 → 매개	(상수)	2.118	.269		7.888	.133	52.831***
		부양육태도 →외향성	.561	.077	.365***	7.269		
	독립 → 종속	(상수)	3.187	.242		13.162	.029	10.158**
		부양육태도 →친구관계	.222	.070	.169**	3.187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2.130	.220		9.705	.326	82.917***
		부양육태도 →친구관계 외향성 →친구관계	-.058	.062	-.044	-.930		
완전 매개효과								
모	독립 → 매개	(상수)	1.480	.267		5.555	.216	94.706***
		모양육태도 →외향성	.724	.074	.465***			
	독립 → 종속	(상수)	2.799	.249		11.260	.060	21.850***
		모양육태도 →친구관계	.324	.069	.244***	4.674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2.066	.220		9.381	.302	82.472***
		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외향성 →친구관계	-.034	.066	-.026	-.513		
완전 매개효과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beta=.365, p<.001$),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9, p<.01$). 마지막으로 부의 양육태도와 외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아($\beta=-.044, p>.05$) 외향성이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외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이 높아질수록 친구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65, p<.001$),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4, p<.01$). 마지막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외향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아($\beta=-.026, p>.05$) 외향성이 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외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이 높아질수록 친구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1>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간 아동의 외향성의 매개효과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방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V-3>와 같다.

<표 V-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방성의 매개효과

구분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²	F
			B	SE	β			
부	독립 → 매개	(상수)	1.394	.258		5.408	.155	63.157***
		부양육태도 →개방성	.589	.074	.394***	7.947		
	독립 → 종속	(상수)	3.187	.242		13.162	.026	10.158**
		부양육태도 →친구관계	.222	.070	.126**	3.187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2.851	.244		11.679	.093	17.490***
		부양육태도 →친구관계 개방성 →친구관계	.080 .241	.073 .049	.061 .275***	1.091 4.913		
완전 매개효과								
모	독립 → 매개	(상수)	.999	.261		3.823	.203	87.615***
		모양육태도 →개방성	.682	.073	.451***	9.360		
	독립 → 종속	(상수)	2.799	.249		11.260	.060	21.850***
		모양육태도 →친구관계	.324	.069	.244***	4.674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2.592	.248		10.448	.104	20.010***
		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개방성 →친구관계	.183 .208	.076 .050	.138* .237***	2.404 4.141		
총효과: .244, 직접효과: .138, 간접효과: .106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94$, $p<.001$),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6$, $p<.01$). 마지막으로 부의 양육태도와 개방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아($\beta=.061$, $p>.05$) 개방성이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개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성이 높아질수록 친구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51$, $p<.001$),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4, p<.001$). 마지막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개방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beta=.138, p<.05$). 이는 개방성이 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는 .138, 간접효과는 .106이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아동의 개방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간 아동의 개방성의 매개효과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실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V-4>와 같다.

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66, p<.001$),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69, p<.01$). 마지막으로 부의 양육태도와 성실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아($\beta=.038, p>.05$) 성실성이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성실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실성이 높아질수록 친구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28, p<.001$),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4, p<.001$). 마지막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성실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beta=.104, p<.05$). 이는 아동의 성실성이 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는 .104, 간접효과는 .140이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아동의 성실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실성의 매개효과

구분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²	F
			B	SE	β			
부	독립 → 매개	(상수)	1.564	.248		6.304	.134	53.333***
		부양육태도 →성실성	.520	.071	.366***			
	독립 → 종속	(상수)	3.187	.242		13.162	.029	10.158**
		부양육태도 →친구관계	.222	.070	.169**	3.187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2.670	.241		11.080	.140	27.966***
		부양육태도 →친구관계 성실성 →친구관계	.050 .331	.070 .050	.038 .359***	.704 6.670		
완전 매개효과								
모	독립 → 매개	(상수)	1.167	.251		4.643	.183	77.268***
		모양육태도 →성실성	.616	.070	.428***	8.790		
	독립 → 종속	(상수)	2.799	.249		11.260	.060	21.850***
		모양육태도 →친구관계	.324	.069	.244***	4.674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2.446	.244		10.011	.148	29.733***
		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성실성 →친구관계	.138 .303	.073 .051	.104* .328***	1.881 5.952		
총효과: .244, 직접효과: .104, 간접효과: .14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3>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간 아동의 성실성의 매개효과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신경증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V-5>와 같다.

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42, p < .001$),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9, p < .05$). 마지막으로 부의 양육태도와 신경증을 동시에 고려할 때, 부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아($\beta = .085, p > .05$) 신경증이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신경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이 낮아질수록 친구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13, p < .01$),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0, p < .05$). 마지막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신경증을 동시에 고려할 때,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beta = .118, p < .05$). 이는 아동의 신경증이 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는 .118, 간접효과는 .062이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아동의 신경증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신경증의 매개효과

구분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R ²	F
			B	SE	β			
부	독립 → 매개	(상수) 부양육태도	3.363	.288		11.685	.020	7.078**
		→신경증	-.220	.083	-.142**	-2.660		
	독립 → 종속	(상수) 부양육태도	3.187	.242		13.162	.029	10.158**
		→친구관계	.222	.070	.169**	3.187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부양육태도	4.882	.229		21.281	.374	104.005***	
	→친구관계 신경증 →친구관계	.111	.056	.085	1.967			
완전 매개효과								
모	독립 → 매개	(상수) 모양육태도	3.236	.301		10.734	.013	4.464*
		→신경증	-.178	.084	-.113*	-2.113		
	독립 → 종속	(상수) 모양육태도	3.014	.337		8.933	.032	11.547**
		→친구관계	.320	.094	.180**	3.398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모양육태도	5.009	.326		15.372	.326	82.954***	
	→친구관계 신경증 →친구관계	.210	.079	.118**	2.656			
총효과: .180, 직접효과: .118, 간접효과: .06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4>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간 아동의 신경증의 매개효과

VI.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 특성, 친구관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성격특성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시에 위치한 S초등학교 5, 6학년 346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에 자기보고용 질문지로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특성, 친구관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친구관계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격특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1)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성격 특성, 친구관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 중 친밀, 헌신, 존경은 아동의 성격특성의 하위변인 중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아동의 성격특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중 친밀, 헌신, 존경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높아지고 신경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여러 이론들(김희수,2004; 김정남,1997; 박은미,1993)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부모-자녀간의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일치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가 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할수록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낮아지고, 아동의 신경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적이고 통제가 심한 양육태도에서는 아동의 공격적이고 적대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장미도(199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과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다른 변인들과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애정적이고, 자녀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엄격한 요인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 중 친밀, 헌신, 존경은 친구관계의 모든 하위요인인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과 정적상관이 있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 중 엄격은 친구관계의 모든 하위변인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중 친밀, 헌신, 존경이 높을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이 높아지지만 엄격할수록 친구신뢰, 교제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친밀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을 경우가 친구관계도 원만하고 반대로 부모가 엄격하고 통제적으로 대하는 보수적인 분위기속에서 자란 경우는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라고 한 이나영(2007), 이양숙(2008))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수용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이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친밀, 헌신, 존경의 하위요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친구관계와 아동의 성격특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격특성의 하위 변인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하위변인인 친구신뢰, 교체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정적상관이 있었지만 아동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은 친구관계의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즉,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 중 친구신뢰, 교체지속, 친구적응, 공동생활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은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모든 변인들과의 관계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영란(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으면 독립적이고 사교적이며 긍정적으로 대인관계 성향이 높고, 신경증이 높으면 부정적, 지배적, 반항적으로 부적 대인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 하며, 신경증이 높으면 사회적 관계와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는 윤미선(201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의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과 이들을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하다.

2) 부모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서 아동의 성격특성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사이에 아동의 성격특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 첫째,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서 아동의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은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모와의 애착과 친구관계간의 성격특성이 완전 매개한다는 배지형(2012)이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만큼 아동의 성격특성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아동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완전 매개하였으며 개방성은 직접효과 .138 과 간접효과 .106이고, 성실성은 직접효과 .104와 간접효과 .140이며, 신경증은 직접효과 .118과 간접효과 .062를 나타내어 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성격특성(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을 매개로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윤미선, 2010; 배지형,20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격특성 요인 중 친화성은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아 제외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정원식,1985; 김정남,1997; 김정희,2007; 김인순,2009)의 연구결과와 이 연구가 일맥 상통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해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의 양육태도는 친구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의 성격특성(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을 통하여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부의 양육태도와 친구관계에 있어 그만큼 아동의 성격특성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의 양육태도는 외향성은 완전 매개하였으나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성격특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배지형,2012; 윤미선,2012)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좋은 친구관계를 이루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밀, 헌신, 존경스럽고 엄격한 요인을 낮춰야 하며 아동의 성격특성을 잘 악하여 긍정적인 친구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부모교육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하여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개선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성격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은 높이고 신경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시 고려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표집이 용이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제주도 지역 초등학교 5~6학년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집지역을 전국적인 다양한 지역에서 하고 표집 대상 또한 초, 중, 고등학생들로 골고루 표집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일반적인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둘째, 양육태도 측정에 있어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지각한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 모두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다면 더 정확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양육자를 부와 모로 한정하여 조사 하였으나 실제 요즘의 가족형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자를 부와 모 외에 한 부모 가족, 조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여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격특성이나 친구관계를 객관적 관찰에 의하지 않고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방법은 설문지 내용이나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연구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긍정적 친구관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친구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의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석영·강문희(2006). 어머니의 완벽주의 및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2), 53-72.
- 강승혜(198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관한 일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소미(2007). 게임중심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이 공감능력, 교우관계 및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희(2009).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연(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4).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6).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유머감각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희(2013). 중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자아통제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및 안녕감 차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2005). 해결중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교우관계와 자기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순(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일치정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7). 초등학생의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현주·이혜경(2009). 청소년의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학 학회지**, 23(1), 77-104.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노윤란(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내적 통제성과 교우관계의 관련성.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이신옥(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6(1), 1-35.
- 문미영(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1(1), 29-43.
- 류동훈(2000). 교사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수용-거부 지각과 사회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수만(2009). 5요인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미(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정(2009). 초,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성희(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배지형(2013). 부모-자녀 애착정도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 분석**. 서울: 학지사.
- 손유진(201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양상. 경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언영(2009).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불안과 우울 성향,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희(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은(1998). 협동적 미술제작을 활용한 집단 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3). 아동의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 수준 및 교우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선(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원희(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부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만(2001). 부모양육 태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김동일·안창규(2005). **NEO 아동 및 청소년 성격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양인영(2010).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 갈등 및 갈등표출 방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11(1), 1-15.
- 오창순, 송미숙(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학회지**, 7, 135-161.

- 유효순·지성애(2004).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윤미선(2010).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및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중재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94-113.
- 이나영(2007).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및 학교 적응과의 상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억(2014). 부모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혜(2004) 집단미술활동의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06).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사회적 환경 변인과 정보사회 대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민(2006). 아동의 성격과 교우관계 인기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5). 초등학교학년의 성과 부모애착 안정성에 따른 친구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숙(2008). 아동의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 생활 적응과의 관계분석.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2008).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박성옥(1991). **아동의 친구관계**. 서울: 양서원.
- 이운영·장휘숙(2011).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와 5요인 성격 특성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24(4), 1-18.
- 이은주(1999).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적응 및 또래 수용도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1999). 동료의 행동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자(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생활 및 학교적응과의

-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1999). 청소년의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김현주(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한국 청소년시설 환경 학회지**, 5(2), 29-42.
- 임귀성(1999). 아동의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도(1997).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5).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 장휘숙(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1(1), 69-87.
- 전민영(2009). 아동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와 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아영(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적 성격특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혜리(2007). 아동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갑영(2010). 아동의 성격특성에 따른 또래관계 및 학업성취도: 학업 효능감이 매개 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숙(2014).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학교폭력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2003). 자기주장훈련이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또래조정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2002). 아동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은주(2013).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 정원식(1979). 가정교육 문제의 재검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목)**, 50-56.
- 정태연(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 심리학회지**, 20(2), 45-46.
- 조영란(2005).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재정(2012). 아동용 초간편 성격 5요인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용일(1970). **교육심리학**. 서울 : 동문사.
- 최보가(1993). **아동의 발달**. 서울 : 형설출판사.
- 최인재(2006.)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6-22.
- 최지은(2001). 청소년의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용일(1970). **교육심리학**. 서울 : 동문사.
- 한경택(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순미(1999). **비고츠키와 교육: 문화-역사적 접근**. 서울 : 교육과학사.
- 허정철(2006).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이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지윤(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관계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0). 특별기고 :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홍원표(2013). 고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숙(2008). 초등학생의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1961). *Pattern personality*. New York : Hott, Rinehar and Winston.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uch, G. K., & Barnett, R. C. (198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ryant, J.(1992).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1), 35-60.
- Burger. J. M.(2000). *Personality(5th ed)*. Belmont, CA: Wadworth/Thomson.
- Buss, A. H., & Plomin, R. A.(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evelopment*. New York. : Jhon Wiley & Sons.
- Christal, R. C., & Tupes, E. C. 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Tech. Rep. Nos. 61-67). Lackland. TX: U. S. A. Air Force Aeronautical Systems Division.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nger, R. D., & Bryant, C. M. & Elder, G. H.(2002). Parental behavior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 friendship: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76-689.
- Costa, P. T. J., & McCare, R. R.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 Publishers.

- DeKovic, M., & Janssens, M. A. M.(1992). Par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Epstein, j. l.(1984). *Friend among students in schools: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factors. in J. L. Epstein & Karweit(Eds) Friends in schools.* New York: Academic.
- Eysenck, H. J. (1947). *Dimensions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Eysenck, H. J.(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 Field, III. : Charles C. Thomas.
- Freud(1953).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 Permabooks, Inc.
- Goldberg, L. R.(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 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 F. Ostenderf(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artup, W.(1983).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V.*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rtup, W. W., & Stevens, N.(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 355-370.
- Howes, C.(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1), 27.
- Hillgard, E. R.(1962).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arce & World.
- Hurlock, E. B. (1950).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Co., Inc.
- Maddi, S. R.(1996). *Personality theories : A comparative analysis(6th ed).* New York: Brooks/Cole.
- McCrae, R. R., & Costa P. T.(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McGuire K. D., & Weize, J. R.(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reedatl of preadolescent chumship. *Child Development, 53*, 1478-1484.
- Medinnus, G. R.(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Delinquent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 Mishel, W.(1976). *introduction to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Rubin, K. H., & LeMare, L. J., & Lollis, S.(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Mills, R. S. L.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al preschoolers. *Journal of Abno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Ryckman R. M.(2000). *Theories of personality (7th ed.)*. Belmont, CA: Wadsworth.
- Sears, R. R., & Maccoby, E, E, & Leve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Row Perterson & Company.
- Sears, R. R.(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Hopper & Row, Publishers, Inc.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Symonds, P. M.(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ublication.

A B S T R A C T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Causal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aising Attitude and Children's Friendships.

Kim, sun he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perceived parental raising attitude, frien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if personality traits would mediate the relation of perceived parental raising attitude to children's friend rel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346 students(5-6 grade) were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 in Jeju.

Students' Self-report measures were used for assessment perceived parental raising attitude, frien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18.

The Summary of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ly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arental raising attitude, frien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Seco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had a mediated effect in relation of parental raising attitude to friend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children's friendships can differ depending on parental rais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lso we identified that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were mediators in process of perceived parental raising attitude and children's friend relationships

It's implication is future parents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parental care. in addition to children's friendships.

● **Key words : Parental Raising Attitude, Children's Friend Relationships,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Mediating Effect.**

설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의 성격특성, 친구관계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문항, 한 문항 응답결과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 김 민 호

연구자 : 김 순 희

■ 다음은 설문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1) 5학년 () 2) 6학년 ()

▶ 학생의 성별은 ?

1) 남자 () 2) 여자 ()

▶ 학생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

② 아버지와만 살고 있다. ()

③ 어머니와만 살고 있다. ()

④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

1. 다음 문항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면 5, ‘조금 그렇다’면 4, ‘보통이다’면 3, ‘조금 그렇지 않다’면 2,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께 나의 비밀을 얘기 할 수 있다.	1	2	3	4	5
2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1	2	3	4	5
3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	1	2	3	4	5
5	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1	2	3	4	5
6	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7	아버지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다.	1	2	3	4	5
8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1	2	3	4	5
9	아버지는 나의 응석을 잘 받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이 든다.	1	2	3	4	5
10	아버지께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1	2	3	4	5
11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1	2	3	4	5
12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1	2	3	4	5
13	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1	2	3	4	5
15	아버지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1	2	3	4	5
16	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1	2	3	4	5
17	아버지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1	2	3	4	5
18	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뜻과 생각은 무시된다.	1	2	3	4	5
19	아버지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1	2	3	4	5
20	아버지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1	2	3	4	5

2.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면 5, ‘조금 그렇다’면 4, ‘보통이다’면 3, ‘조금 그렇지 않다’면 2,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께 나의 비밀을 얘기 할 수 있다.	1	2	3	4	5
2	어머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1	2	3	4	5
3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1	2	3	4	5
4	어머니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	1	2	3	4	5
5	어머니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1	2	3	4	5
6	어머니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7	어머니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다.	1	2	3	4	5
8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1	2	3	4	5
9	어머니는 나의 응석을 잘 받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이 든다.	1	2	3	4	5
10	어머니께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1	2	3	4	5
11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1	2	3	4	5
12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1	2	3	4	5
13	어머니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1	2	3	4	5
14	어머니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1	2	3	4	5
15	어머니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1	2	3	4	5
16	어머니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1	2	3	4	5
17	어머니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1	2	3	4	5
18	어머니와 의견이 다를 때 내 뜻과 생각은 무시된다.	1	2	3	4	5
19	어머니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1	2	3	4	5
20	어머니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1	2	3	4	5

3. 다음 문항들은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면 5, '조금 그렇다'면 4, '보통이다'면 3, '조금 그렇지 않다'면 2,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 웃는다.	1	2	3	4	5
2	정해진 행동 습관을 잘 바꾸지 않는다.	1	2	3	4	5
3	가족이나 친구(동료)들과 자주 논쟁(언쟁)을 한다.	1	2	3	4	5
4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쉽게 무기력 해진다.	1	2	3	4	5
5	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6	자연의 모습이나 예술작품에 흥미를 느낀 때가 많다.	1	2	3	4	5
7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8	일을 할 때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9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해 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즐겁다.	1	2	3	4	5
11	나는 자주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 진다.	1	2	3	4	5
12	활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곳에 가기를 나는 좋아한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15	가끔 내 자신이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5
16	새로운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한다.	1	2	3	4	5
17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마음을 잡지 못해 일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1	2	3	4	5
19	나는 힘이 넘치고 활기가 있다.	1	2	3	4	5
20	작은 일에도 깊이 감동을 느낄 때가 있다.	1	2	3	4	5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않다	않다			
21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22	사람들이 나를 대한 태도 때문에 자주 화가 난다.	1	2	3	4	5
23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쁘다.	1	2	3	4	5
24	윤리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1	2	3	4	5
25	어떤 사람은 나를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나는 쾌활하고 활기찬 사람이다	1	2	3	4	5
27	시를 읽거나 예술작품을 볼 때 쉽게 감동을 느낀다.	1	2	3	4	5
28	나는 동정심이나 감정에 의해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다.	1	2	3	4	5
29	좀처럼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는다.	1	2	3	4	5
30	나는 부지런하고 늘 바쁘게 지낸다.	1	2	3	4	5
31	해야 할 일을 제 때에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많다.	1	2	3	4	5
33	나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34	나는 지적인 호기심이 강하다.	1	2	3	4	5
35	싫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싫다고 표현한다.	1	2	3	4	5
36	조직적으로 정리 정돈을 잘한다.	1	2	3	4	5
37	가끔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38	어떤 현상이 원리나 이론에 대해 알아보거나 말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39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기꺼이 이용한다.	1	2	3	4	5
40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우수하고 뛰어 나도록 애쓴다.	1	2	3	4	5

4. 다음 문항들은 <친구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면 5, '조금 그렇다'면 4, '보통이다'면 3, '조금 그렇지 않다'면 2,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변에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없다.	1	2	3	4	5
2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1	2	3	4	5
3	나와 마음의 잘 통하는 친구가 없어 늘 외롭다.	1	2	3	4	5
4	나의 친구들은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	1	2	3	4	5
5	나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1	2	3	4	5
6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친구가 별로 없다.	1	2	3	4	5
7	나는 친구들과 쉽게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자주 있다.	1	2	3	4	5
8	나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거의 없다.	1	2	3	4	5
9	나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기 싫은 친구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해 고민이다.	1	2	3	4	5
10	좋아하는 친구가 자주 바뀌는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친구를 대할 때 나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1	2	3	4	5
12	나는 친구들과 친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를 대할 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어서 안타깝다.	1	2	3	4	5
15	활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	1	2	3	4	5
16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1	2	3	4	5
17	친구들은 나를 가까이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18	나는 친구와 어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에 방해가 된 적이 있다.	1	2	3	4	5
1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0	나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보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1	2	3	4	5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